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종교에서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인 영혼과 죽음 그리고 사후세계라고 하는 것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주로 다루려고 하는 질문은 영혼이란 무엇이고, 죽음은 종교에서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는가, 그다음에 사후세계, 종교적 세계관이 빠짐없이 주장하고 있는 사후세계란 어떤 개념인가를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죽음이라고 하는 현상이 없으면 종교가 성립하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붓다의 얘기가 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붓다에게 가서 위로를 원하는데 붓다가 내린 처방은 마을에 가서

그 일가친척 혹은 가족들 중에 누구도 죽지 않은 집안이 있으면 그 집안사람들에게 겨자씨를 얻어오라고 하는 조언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어머니가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뭘 알게 됩니까? 어떤 사람도 어떤 가족도 어떤 집안도 지인, 친척,

일가의 죽음이 없는 집안은 없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이라고 하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절로 이제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지게 됐다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비슷한

사례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는 불멸성입니다. 즉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지만 신은 불멸의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실제로 인간이 죽지 않는다고 하면 죽음 이후 혹은 왜 죽는지, 죽음 이후에

세계에 관한 얘기들을 말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꽤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죽음

때문에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도 보이지 않는 차원으로

뭔가 불멸하기 위해서는 그 불멸의 실체를 우리가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 육체적인, 비물질적인 실체를

움직이는 힘을 우리가 영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 영혼이 한 번 죽음을 맞이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가서

영혼이 그곳에서 머무르고 하면 다시 말하자면 한 번 태어난다고 하는 이 종교적 세계관이 있는가 하면 이 영혼이

끊임없이 되풀이돼서 육체를 입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영어로 **Reincarnation** 그러니까 육체를 거듭 입는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윤회론이라고 보통 번역되는 세계관인데 이 윤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종교적 세계관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들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영혼이 결국은 죽어서 육체를 버린 이후에 가는 곳. 이걸 이제

보이지 않는 차원이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사후세계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즉,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존재하는 실체인 영혼이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혼이

한 번 돌아오느냐 아니면 여러 번 돌아오느냐 그리고 가서 어느 곳에, 천국 혹은 지옥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형태로

종교적인 세계관에서 이름을 붙입니다마는 이 사후세계의 개념에 이르는 이 3가지 개념이 하나의 쌍으로써 종교적

세계관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죽음도 불사하게 만드는

공산주의 혹은 뭐 여러 가지 기타 이데올로기적인 체계를 저희가 종교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 자체가 바로

이거처럼 사후세계, 죽음 이후에 세계에 대한 차원에 대한 믿음이 그쪽 세계관, 세속적 세계관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 혹은 종교적인 세계관과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여기서 또 하나 이렇게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현대 사회에서 이 사후세계 혹은 영혼이라고 하는 문제 자체가 종교적 세계관 혹은 종교적 테두리에 국한되지

않은 현상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임사 체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임사 체험에 관한 영어로 이제 **Near death experience** 즉, 다시 말해서 죽음 가까이 간

체험입니다. 아마 이 강연 들으시는 분들도 어디선가 이런 말씀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에서 70년대 이후에

**Raymond moody**와 같은 사람 혹은 **Elizabeth Kubler Ross**라고 하는 의사들입니다. 이 의사들이 응급 환자들을

많이 치료하면서 응급 환자들 중에 일부가 죽음을 맞았다가 되살아왔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 혹은 사례들이 이제

자꾸 등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경험을 소위 완전히 죽지는 않고 죽음 가까이 갔다가

되돌아온 사람 즉, 임사 체험자라고 하는 명칭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이제 인터넷이 발전하게 되면서

전 세계 임사 체험자들의 경험이 서로 공유가 되면서 임사 체험의 유형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발전적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사 체험자들의 특징적 모습은 이렇습니다. 교통사고와 같은 응급 상황에서 자기가

자기 몸 바깥에 서서 자신의 몸을 이렇게 쳐다보고 심지어는 이제 의사들이 자기 몸에 심장 박동 충격부터 시작을 해서

회생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여실히 목격을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렇게 어두컴컴한 터널 같은 데 갑자기 빨려

들어가면서 그 터널 끝에 이제 밝은 곳에 도달해서 이 밝은 곳에 가면 자기보다 먼저 죽었던 부모님이나 일가친척들 혹은

이제 종교적인 성인이라든지 종교적인 인물들이 만나서

저희가 뭐 익히 들어본 얘기입니다마는 아직 너는 때가

아니어서 이제 지상으로 다시 되돌아가라.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아픈 몸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임사 체험의

전형적인 얘기인데 실제 임사 체험에 대한 얘기는 인류  
역사에 굉장히 오랫동안 간헐적으로 등장합니다. 저희도 이제

가끔 일간지 신문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얘기에 관한  
말씀들을 가끔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플라톤의 국가론을 보면

가장 마지막 부분에 전쟁에 참여했다가 죽은 줄 알고  
동료들이 내버려 두고 왔는데 이 친구가 예르라고 하는

군인이 되살아난 얘기가 있습니다. 천상의 세계에 갔다가  
신이 아직 때가 아니고 이 천상의 세계의 모습을 동료들에게

전해주라고 하는 소명을 받고 다시 살아서 이제 혼자서  
이렇게 폴리스로 돌아온 예르 신화의 얘기를 포함해서요.

히에로니무스 보쉬와 같은 사람이 그린 천상으로의  
상승이라고 하는 그림들도 보면 마치 현대 임사 체험자들이

보고하고 있는 검은, 좁은 터널을 통과해서 밝은 곳이 비추는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얘기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예전에는 임사 체험에 대한 현대적 연구가  
없었을 때에는 그냥 신화,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임사 체험에 관한 연구 때문에 이 인간적 경험들이  
제도화된 종교 바깥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또 동시에 이 영혼 얘기가  
아까 말씀처럼 사후세계를 한 번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몸을 거듭 입는다라고 하는 거를 윤회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이 윤회를 기억하는 아이들에 관한 연구도

제도화된 종교와 별개로 미국에서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이안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이 선생님이 전 세계  
5살, 6살, 7살처럼 유아기나 아동기 때 자신의 전생을

기억하고 있는 아이들의 사례를 수천 건, 수십 년 동안  
수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거뿐만 아니라 요즘 뭐 저희가

이렇게 대중매체에서 흥밋거리로 전생 퇴행이나 전생  
최면들을 통해서 자신의 윤회의 모습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사례들이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 자체가 사실은  
현대 사회에서 말 그대로 제도화된 종교의 교리가 아니지만

그 종교적 세계관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혼이라든지  
혹은 사후세계라든지 혹은 인간의 영혼이 여러 번 육체를

입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옮겨 다닐 수  
있다고 하는 얘기들이 이 병원 혹은 대학과 같은 곳에서

윤회론의 연구 혹은 임사 체험의 연구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이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대목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것은 결국 그래서 영혼과 사후 세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종교의 핵심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그리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개념쌍이라고 하는 점인 거죠. 그리고 덧붙여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종교적 세계관과 연결시켰을 경우에 이 보이는 차원에서 보이지 않는 차원. 저희가 이제 우리

전통적인 말로는 여기를 이제 이승이라고 하고 저쪽을 저승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승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저승으로 가는데 만약 저승에 있는 존재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하면 저쪽 세상에서 이쪽

세상으로 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두 세계, 이승과 저승이 하나의 거대한 쌍을 이루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종교 혹은 종교적인 세계관은 분명한 형태로 반복적으로 강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끝으로 현대 사회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종교적 세계관의 중심적인 교리인 영혼이라든지 혹은 죽음이라든지

혹은 윤회와 같은 사고나 개념들이 제도화된 종교와 전혀 무관하게 대중들의 세계관의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사례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윤회론을 믿는 비율이 기독교 혹은 불교, 천주교와 같은

종교적 배경과 무관하게 심지어는 이제 종교가 없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나라 인구의 한 20% 이상이 윤회론을

받아들입니다. 이 사실 자체가 실제로 종교라는 것하고 종교의 핵심을 이루는 종교적 세계관 혹은 교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매우 유연하게 형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사후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영혼 혹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한 쌍으로 종교의

이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이런 식으로 종교와 종교적인 세계관과 인간의 입사 체험과 같은 종교적 경험들이 분리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이제 현대 사회에서의 종교가 보여주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특성들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